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5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9)높은오름·당오름

입력 : 2003. 12.05. 00:00:00

탐사단은 구좌읍 송당에 이르렀다. '신들의 고향'인 제주지역 당신(堂神)의 원조라고 일컬어지는 본향당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본향당은 제주도지정 무형문화재이다. 본향당신 자손들이 제주 각지로 흩어져서 좌정하고 곳곳의 당신이 되었다. 그래서 송당은 제주 무속신앙의 메카로 일컬어진다.

■당오름, 마을의 번영과 안녕 도모

중산간에 위치한 송당은 원래 마을 위치상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1980년대 중산간도로가 잇따라 개통됨으로써 사통팔달의 마을로 모습이 바뀌고 있다. 현재 개발사업이 한창인 세화송당온천지구는 송당의 최근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송당리는 마을 주변에 많은 오름을 거느리고 있고 광활한 초원지대를 형성하여 넓은 목장지대가 많다. 기록상으로는 도내 총 368개의 오름 가운데 40여개의 오름이 송당리 경내에 있다. 세화송당 온천지구 조성사업은 이같은 오름군락의 입지적 조건을 활용한 개발사업이다. 1950년대 후반 조성된 송당목장은 당시 동양최대의 국립목장으로, 목장지로서의 송당의 위상을 가늠케 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높은오름

송당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오름이 바로 높은오름과 당오름이다. 높은오름은 높이로 보나 풍모로 보나 구좌지경 오름의 맹주격이라 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고악(高岳)이다. 표고가 405.3m, 비고는 175m로 다랑쉬와 자웅을 겨룬다. 오름 남동사면에는 구좌읍 공설공동묘지가 빽빽이 조성돼 있다. 탐사단은 11월 1일 동거문악과 문석이오름을 오른 뒤 높은오름으로 향했다.

구좌공설묘지를 지나 농로를 따라 1km 남짓 더 가면 오름으로 향하는 길목이 나타난다. 오름을 반쯤 오르면 잠시 숨고르기에 적당한 평지다. 다랑쉬, 동거문악, 백약이오름으로 이어지는 오름군이 압권이다. 산화경방초소가 있고 선인들은 높은오름 중턱도 묏자리로 삼았다.

정상으로 오르는 초지는 물매화, 꽃향유, 쑥부쟁이 등의 피난처 구실을 하고 있다. 높은 오름 모든 사면은 초지가 많지만 해송이 영역을 넓히고 있고 삼나무도 한 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생

한라일보

물의 세계에는 냉엄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존재한다. 경쟁에서 지는 생물은 도태되면서 피라미드 형식의 먹이사슬을 형성하며 자연생태계를 유지한다. 식물의 세계도 물론 적용된다. 초원오름은 방목이 쇠퇴하면서 억새초원으로, 그리고 해송군락으로 점차 모습을 바꾸고 있다.

강영제 위원은 "미래의 후손들이 나지막하고 아늑한 초원오름의 동선과 여기에 자생하는 동식물을 공유하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원오름 보호지대를 설정하여 오름의 경관과 생태계의 종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결코 빠르지 않다"며 초원오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름을 오르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나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 서면 한라산 동부의 오름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좌지역 어디에서나 높은오름이 눈에 띄는 것처럼 오름 정상에서도 제주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아부오름 분화구도 높은오름에서 볼 수 있다. 높은오름 정상은 원형의 굼부리다. 그 주위를 3개의 봉우리가 이어진다. 탐사단은 정상 둘레를 한바퀴 돌았다.

△당오름

당오름 탐사는 일주일 뒤인 11월 8일에 이루어졌다. 본향당이 위치해 있는 당오름탐사에는 특별히 좌혜경 박사(제주도문화재위원)와 제주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동행했다. 좌 박사는 한라산탐사 1부 '하천과계곡'에서 제주의 신화와 전설, 민요를 들려주며 탐사위원으로 활약했었다.

탐사단은 본향당과 당오름 탐사에 앞서 송당마을회관을 찾았다. 탐사단을 기다리고 있던 김인선(55) 이장과 고원유(74) 노인회장, 고여봉(81) 전노인회장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본향당신인 백주또여신을 모시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그 예로 6·25 한국전쟁과 4·3 때에도 중산간 마을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다고 말했다. 본향당신에 대한 주민들의 철학과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송당 마을 전체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마을로 육성해야 한다며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좌 박사는 본향당으로 옮긴 자리에서 송당리 당 본풀이의 주인공 백주또여신의 성격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좌박사는 "백주또는 자청비나 삼성신화의 세 여신처럼 오곡의 씨앗을 직접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농사를 권유하고 농사를 짓도록 한 농경신 혹은 지모신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좌 박사는 "백주또는 농경신으로서의 업적만이 아니라 영웅탄생의 현신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무속신앙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향당터에 새로 지어진 건물과 현수막 구조물은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오름은 전체적으로 나지막하다. 오름을 한바퀴 도는 농로가 개설돼 있으나 오름 전 사면에 소나무 등 나무들이 빽빽해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나무숲을 뚫고 정상에 올랐으나 안개에 뒤덮혀 굼부리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특별취재팀

한라일보

[전문가 리포트]송당마을과 당오름

옛날부터 '솔당(松堂)'이라 불려오는 송당마을은 산북지역의 동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마을 주변에는 당오름을 비롯하여 안친오름, 돛오름, 높은오름, 아부오름, 샘이오름, 안돌오름, 밖돌오름, 체오름, 뒤꾸부니오름 등 오름들이 지척에 깔려 있다. 그야말로 송당마을은 오름 왕국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송당마을은 영조연간(1780~1789년)에 작성된 '제주읍지(濟州邑誌)'에는 제주목의 좌면(左面)에 편제돼 있었으며, 당시 인구는 좌면 19개 마을 중 8번째로 큰 마을이었다.

송당마을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축업을 영위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원지대의 덕택도 있었겠지만, 마을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며 의지할 수 있는 영험한 신(神)의 존재도 한 몫 하였다.

백주또 여신은 송당에 거주하던 소로소천국이라는 남신(男神)과 결혼하여 아들 18명, 딸 28명을 낳았는데 후에 이들이 전도에 흩어져 여러 마을의 당신(堂神)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제주도가 신들의 고향이라 일컬어지는 배후에는 송당마을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백주또 여신이 좌정해 있는 송당 본향당은 당오름 북서쪽 아늑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신당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에는 "제주신당지원조 송당본향당(濟州神堂之元祖 松堂本鄕堂)"이라는 큰 표석 하나가 세워져 있다. 1986년 송당리 마을제가 도지정 무형문화제로 지정된 이후에 세워진 징표이다.

당오름은 백주또 여신이 좌정한 신당을 보호하는 역할은 물론이고, 송당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당오름이 있음으로 해서 송당마을이 들어설 수 있었고, 송당마을 주민들이 떠받드는 백주또 여신이 있기에 당오름의 존재도 커지는 것이다.

당오름은 높이 274m로 비교적 낮은 오름이지만, 오름 전체가 나무로 우거져 있어 정상까지의 등반이 결코 쉽지 않았다. 탐사팀이 탐방했을 때는 때마침 가랑비가 내리며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다. 마치 백주또 여신이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내오는 듯 했다.

결국 우리 일행은 당오름 정상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하산해야만 했다.<정광중 탐사위원(제주교대 교수/인문지리)>

[大脈에서 만난 사람]오름에 대한 인식 새로와져

한라대맥 탐사에 동행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오름동호인들은 물론 회사원, 학생들도 대맥탐사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한라일보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사는 참가자들에게 제주의 자연과 선인들의 삶, 역사, 문화의 흔적들을 체험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때로는 고단하고 힘겨운 여정이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면서도 오름의 가치와 탐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전문가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식의 충전에 기쁨을 맛본다"고 말한다.

11월 8일 구좌읍 송당 당오름 탐사에는 제주교육대학교 재학생 10여명이 동참한 뒤 탐사후기를 본사에 보내왔다.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무엇보다 한라대맥이라는 표현과 함께 오름이 와 닿는 느낌이 더욱 강해지면서 여운이 더 오래가는 것 같다. 제주도 무속신앙의 원조인 송당 본향당이 앞으로 계속하여 보존이 되고, 아울러 당오름을 오르는 등산로에서 보고 느낄수 있는 소재들을 등산로 입구에 세워놓아 등산객들이 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도록 했으면 한다."(현혜숙·사회과교육과 3년)

"힘겨움 속에서도 내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과 함께 오르는 기쁨 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과 배움에 있었던 것 같다. 당오름을 올라가면서 처음 보는 꽃과 나무들이 많았고 이런 식물들과 오름의 형성에 대한 교수님들의 설명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닌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이었다. 내가 장차 가르치게 될 아이들도 지금의 나처럼 직접 자연 속에서 체험하며 학습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산교육이며 의미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박소정·사회과교육과 3년)

"제주에는 많은 오름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름은 얼마나 될까. 이번 탐사를 계기로 오름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라대맥이라는 말이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가소롭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이며, 이를 깨기 위해 제주 도민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간과하기 쉬운 오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재조명한다면 오름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김소희·사회과교육과 3년)<제주교대 사회과교육과생>

[사진설명]구좌읍 송당 높은오름과 종달 동거문악 사이 평지에 있는 미나리못이다. 못 주변에 실제 미나리가 자라고 있다. 암반위에 만들어진 못은 1천여평에 달하며 일년내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수량이 풍부하다. 주변 초지가 방목지여서 우마에게는 매우 소중한 공간이다. 못 너머에 보이는 높은오름이 연못에 투영돼 있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알림]이번주는 일요일에 탐사합니다.

한라산 탐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취재팀으로 구성, 매주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탐사는 7일(일) 비치미오름과 민오름입니다. 집결지는 당일 오전 9시까지 한라일보사 1층 휴게실입니다. 탐사참가비 1만원. 동행을 희망하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기획특집부(750-2280)로 연락바랍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라일보